

셀트리온, '치매 패치제' 도전장

아이큐어와 '도네페질' 임상 3상 내년 연말까지 국내 허가 목표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 일환"



서진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셀트리온이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큐어와 함께 치매 치료제 '도네페질(Donepezil) 패치제' 임상 3상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17년 6월 아이큐어가 개발해 비임상 및 임상 1상을 마친 치매 치료 도네페질 패치제 개량신약에 대한 국내 공동 판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공동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올해 말 글로벌 임상 3상을 위한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오는 2020년 말 도네페질 패치제 국내 허가를 목표로 노인성 뇌질환 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다양한 케미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글로벌 판매를 통

해 세계 케미컬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경피약물 전달기술 특히 50여 건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큐어와 손을 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도네페질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1800억원으로, 최근 4년간 13%대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는 2021년에는 시장규모가 25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도네페질은 치매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는 성분으로 현재 경구 제형만 상용화 됐다. 이에 지금까지 글로벌 제약사들은 하루 복용량이 많고, 제제 안정성이 낮은 경구제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패치제형 개발에 도전해왔지

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셀트리온과 아이큐어가 공동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도네페질 패치제 개량신약은 기존 1일 1회 경구제 복용과 비교해 1주일 2회 패치 부착으로 복용 순응도를 높이고, 패치 크기를 줄여 복용 편리성을 한 차원 향상시킨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10여 개 국가에 다중 특허를 출원해 2035년까지 독점권을 보유하는 한편, 아이큐어가 400억원을 투자해 완공한 전북 완주공장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cGMP급 생산기지도 확보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바이오헬스케어 개발에 이은 글로벌 케미컬의약품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번 도네페질 패치제를 개발하게 됐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코스맥스 본사에서 열린 '뉴스킨-코스맥스 업무협약식'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킨코리아

뉴스킨, 코스맥스와 손잡고 K-뷰티 박차

연구·개발·생산 등 업무협약

뉴스킨 코리아는 글로벌 본사인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지난 4일 글로벌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회사 코스맥스와 업무협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코스맥스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조지훈 뉴스킨 코리아 대표이사와 케빈 풀러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제품 및 브랜드 부문 수석 부사장을 비롯해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스킨은 글로벌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로서 화장품 ODM 선도 기업인 코스맥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뷰티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K-뷰티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데 더욱 힘을 보탤 계획이다.

뉴스킨은 지난달 코스맥스와 함께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갈바니 라인에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에이지락 갈바니 스킵 파워마스크'를 새롭게 선보였다. 에이지락 갈바니 스킵 파워마스크는 한국을 허브로 뉴스킨의 글로벌 시장을 통해 폭넓게 판매되면서 국내 제조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색조 제품이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코스맥스와 공동으로 '뉴컬러(Nu Colour)' 라인의 개발 협력을 증대해 왔다. 특히 한국에서 쿠션 파운데이션의 선풍적인 인기로 따라 지난해 '뉴컬러 라이트스테이 쿠션' 라인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글로벌 파운데이션 라인을 오는 2021년 론칭하기 위해 코스맥스와 함께 개발 중에 있다. /신원진 기자

삼바, 美 제약사와 아토피신약 CMO계약 확대

(위탁생산)

아이크노스社와 63억 추가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아이크노스 사이언스(Ichnos Sciences)와의 아토피 치료제에 대한 위탁생산(CMO) 계약이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양사간 체결한 100억원 규모 CMO 계약에 63억원을 추가 체결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계약을 통해 고객사 제품개발 성공 시 최소보장 금액 증가 관련 조항도 새롭게 이끌어냈다.

회사가 추구하는 이번 계약의 최소 보장금액은 163억 원(1510만 달러)이다. 2020년으로 예상되는 고객사의 제품개발이 성공할 시, 최소 보장 계약 규

모는 715억원(6644만 달러)으로 늘어나게 된다. 삼성바이오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3상 진행용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아이크노스 사이언스는 신약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높은 시장성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물질 연구를 통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생명공학기업이다.

삼성바이오와 아이크노스 사이언스는 지난 2017년 위탁생산계약 의향서를 체결하며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삼성바이오는 이후 고객사 신약의 빠른 출시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

공과 고객만족을 위한 임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추가 생산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향후 고객사의 개발성공에 따른 수요 증가에 맞춰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3공장까지 생산공정을 확장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최소보장 계약금액은 추가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은 "아토피 피부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있어 고객사의 임상 초기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파리바게뜨 "뉴트로 감성 선물로 수험생 응원하세요" 파리바게뜨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파리바게뜨 카페대화로점에서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뉴트로 감성의 패키지에 합격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수능 선물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GS리테일 1만원대 '캘리포니아메들로' 선배

네이처사운드 와인 시리즈 2탄

GS리테일은 지난 4일 '네이처사운드(The Nature Sound)' 와인 시리즈 2탄 네이처사운드캘리포니아메들로(이하 캘리포니아메들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네이처사운드는 GS리테일이 '자연을 담은 와인' 콘셉트로 지난해 처음 선보인 와인 시리즈다.

네이처사운드 시리즈의 첫 상품인 네이처사운드호주쉬라즈(이하 호주쉬라즈)가 지난해 출시 후 1년만(18년9월~19년9월)에 누적 판매량 40만병을 기록하고 와인 분류 매출 순위 1위(10월 기준)에 오르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자 두번째 시리즈인 캘리포니아메들로가 기획된 것이다.

GS리테일이 이번에 선보인 캘리포니아메들로는 체리, 블루베리향과 커런트(Current)향, 오크통의 바닐라향의 어우러짐이 인상적인 와인으로 탄닌(떫



모델이 네이처사운드캘리포니아메들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리테일

은맛이 강하지 않고 부드러운 와인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쉽게 즐길 수 있다. GS리테일은 이번 캘리포니아메들로를 위해 미국 유명 와이너리인 펫저(PETZER)와 협업했다. 펫저는 미국에서 가성비 높은 물론 품질까지 인정받아 '올해의와이너리'로 선정된 바 있다. 덕분에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메들로 와인을 가성비까지 갖춘 1만원대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모나미 두번째 '모나미 153 스마트펜'

모나미가 두번째 '모나미 153 스마트펜(사진)'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모나미 153 스마트펜'은 지난 1월 출시한 네오스마트펜 '모나미 에디션' 완판에 힘입어 모나미 153 1.0mm 볼펜의 노란색 바디와 검정색 노크의 색상을 적용한 두 번째 스마트펜이다.

모나미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펜에 모나미만의 특별한 감성과 153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를 완성시켰다. 스마트펜은 종이에 쓴 글을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옮겨주는 제품으로, 펜에 내장된 광학센서가 필기를 디지털로 변환해 스마트기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패키지는 모나미 153스마트펜본품과 전용 노트 1권, 리필용 볼펜심 3개, 충전용 USB 케이블, 153 한정판 배지 1개로 구성됐다. /박인용 기자



GC녹십자웰빙 '프로바이오틱스' 특허 취득

"신장질환 개선 등에 효능"

GC녹십자웰빙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신장질환에 효능이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GC녹십자웰빙이 취득한 특허는 요독증, 만성신부전 등 신장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조성물 특허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내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신장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인 요독 물질의 제거 효과가 뛰어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를 선별해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투여군에서 신장기능지표인 혈중 요소 질소 수치와 크레아티닌 농

도가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되면 혈중 요소 질소 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한다. 또 투여군에서 신장질환을 악화시키는 염증유발 물질 중 하나인 신장조직 내 종양괴사인자(TNF- α)가 대조군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회사 측은 특허 등록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웰빙 김점용 연구소장은 "특허 등록된 균주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적절한 치료환경이 부재한 만성신부전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